



SICEM "질적 향상 도모...글로벌로 향한다"

"AOCE 2020 서울 유치...아시아와 미국, 유럽 잇는
허브로 도약" 의지 밝혀

올해 7회째를 맞아 명실공히 국제학술대회로 우
뚝 선 SICEM(International Congress of Endo
crinology and Metabolism)이 그동안 추진해
온 해외 네트워크 강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양적 성장을 이룬 만큼 내년 4월 열리는 AOCE(

아시아오세아니아내분비학회) 유치를 계기로 아
시아와 미국, 유럽을 잇는 내분비 학술행사의 국
제적인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다.

이은직 대한내분비학회 이사장은 지난 4월 19일
그랜드 워커히호텔에서 열린 SICEM 2019 기자

간담회에서 "7년 전 국제학회로 출발해 지금은 SICEM(서울 국제내분비학회)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접수되고 있다"며 "올해는 해외 학술단체와 협력해 명실공히 글로벌 학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이번 행사에서 해외 학술단체와의 서브밋(Summit)을 통해 질적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실제로 적잖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SICEM 2019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미국 내분비학회와 양해각서(MOU) 체결을 논의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고, 유럽 내분비학회와는 19일 MOU를 체결했다.

이 이사장은 "미국 내분비학회는 질병 치료 가이드라인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며 "미국 학회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과 가이드라인 개발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해외 네트워크 강화 노력 가시화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린 SICEM 2019는 해외 학술단체와의 공식적인 협력 세션도 확대 구성했다. 일본 내분비학회와의 공동 협력 세션에 이어, 아세안 국가들의 내분비학회 연맹인 AFES, 대만 내분비학회, 유럽 내분비학회와의 조인트 심포지엄이 열린다.

전임 집행부에서 해왔던 해외 네트워크 강화가 실질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정운석 학술이사는 "우리나라도 지금은 선진국에 포함됐으나 불과 3~40년 전만 해도 환경이 열악했다"며 "이제는 다른 아시아권 의료인들을 초청해 직

접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정도로 입장이 변했다"고 자평했다.

SICEM은 매년 1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학술행사이다. 해외 참석자 비율은 해마다 증가해 올해는 333명의 해외 참석자들이 사전등록했고, 전체 참석자들의 30%를 해외 연구자들이 차지했다.

정 학술이사는 "8개 세션을 동시에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학회가 성장했다"며 "아시아, 아프리카, 미국, 유럽, 호주 등 38개 국가에서 400여개의 초록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SICEM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내분비학계의 세계적인 리더들의 참석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의과대학장인 래리 제임슨 교수, 미국 내분비학회 회장인 데일 에이블 교수, 로마린다 대학의 수부라만 모한 교수, 스위스 로잔 대학의 피터 캅 교수 등 내분비학 각 분야 오피니언 리더들이 기초 강연을 주도했다.

특히 래리 제임슨 교수와 피터 캅 교수는 각각 Journal of the Endocrine Society(JES), Thyroid 지(紙) 등 미국 내분비 및 갑상선 분야의 대표 학술지 편집위원장으로 학술지 발전의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했다.

AOCE 2020 유치 및 학술지 MEDLINE 등재 쾌거

대한내분비학회는 아시아-오세아니아 국제학술행사인 AOCE 2020 미팅을 국내 유치했다. 내년 4월 중순 경 SICEM 2020과 공동으로 개최된다.

아시아 각국과의 학문적 교류와 함께 매년 증가하는 해외 참석자들에게 확충된 교육 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선진국과 아세안 국가를 잇는 허브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대한내분비학회 공식 학술지인 'Endocrinology and Metabolism(EnM)'은 지난 3월 MEDLINE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1986년 창간된 이후 국내 내분비학의 발전과 쾌거를 함께 이어온 EnM은 2013년 Pubmed Central, 2015년 Scopus, 2016년 CAS, Embase, DOAJ, 2017년 ESCI에 등재된 이후 이번 미국 국립 의학도서관 데이터베이스인 MEDLINE에 등재된 것이다.

이원영 간행이사는 "EnM은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

역을 대표하는 내분비 학술지로 발전하고 있다"며 "등재과정이 어려운 MEDLINE에 등재됨으로써 논문의 질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대한내분비학회는 1932년 창립돼 갑상선, 당뇨병, 신경내분비, 골대사, 부신, 생식, 소아, 비만, 지질대사 등 내분비대사질환의 학문적 연구를 위해 활발한 정보교류를 지속하며 관련 학회의 모(母)학회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정희 기자/MP저널

